



## 서울공고 그래픽아트과 한국조폐공사와 산학협력 업무협약 체결

서울공업고등학교(교장 박인환) 그래픽아트과는 지난 9월 24일 한국조폐공사(사장 윤영대)와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산학협력을 통한 인적 자원의 양성, 직업교육의 연구·활성화 및 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글 | 조갑준 기자 kjcho@print.or.kr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한국조폐공사는 협약 체결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기회와 인턴 채용 시 학교장 추천 기회를 제공하고, 직무수행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상호 지원하며, 직업교육 및 산학협력이 가능한 사항에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조폐공사는 올해 고졸인턴사원 55명을 채용해 이중 우수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서울공고에서는 인턴사원 8

명(그래픽아트과 : 이승민, 이동형, 이재원, 한정우, 한홍민, 정밀기계과 : 송정훈, 전자과 : 김효성, 환경화공과 : 김동엽)이 선발됐다. 이는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에게 해당한다.

서울공고는 이번 조폐공사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사업 현장에서 필요한 우수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



### >>서울공고 그래픽아트과

1955년 4월 1일에 개설된 서울공업고등학교 인쇄과는 우리나라 근대 인쇄교육의 시발이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1993년 3월 인쇄사조과로 학과명을 변경했고, 2005년에는 정보화글로벌 시대의 구조적 전환기를 맞아 인쇄산업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대폭 수정해 학과명을 그래픽아트과(Graphic Arts : 예술적인 가치의 인쇄)로 개명했다. 미래 산업사회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수단으로서의 그래픽아트과는 사진·영상 매체, 컴퓨터그래픽·전자출판 매체, 평판·특수인쇄 매체를 접목시키는 화상공학으로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이미지 표현을 위한 기본 지식과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유능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전공교과과목** 컴퓨터그래픽, 사진기술, 전자출판, 인쇄일반, 평판인쇄, 특수인쇄
- 실습과정** 컴퓨터그래픽실습, 사진·영상실습, 전자출판실습, 평판인쇄실습
- 취득자격증** 사진기능사, 전자출판기능사, 그래픽스운용기능사, 스크린인쇄기능사, 사진제판기능사, 인쇄기능사
- 진출분야** 신문사, 국영기업체, 출판사, 조폐공사, 군무원, 기능직공무원, 광고기획사, 프리프레스관련업체, 디지털인쇄업체, 특수인쇄업체

